

서울기술연구원, '탄소중립 도시, 에코서울 구현' 정책 토크룸 개최

14일 서소문2청사 20층 온실가스 감축 주제로 '탄소중립 에코서울 위한 서울시 정책 토크룸' 개최

서울기술연구원은 14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도시, 에코서울 구현'을 주제로 탄소중립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책임자가 함께 토론하는 정책 토크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크룸에는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인사말을, 김용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크룸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현황 및 대응진단' 등의 연구성과를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왜 정체됐나?'로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감축정책의 목표설정과 이행계획 등 그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한계점과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①일관성 있는 감축정책 수립, ②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및 정량적 성과 연계 검토, ③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 평가(피드백), ④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건물, 수송, 폐기물, 산업별 온실

가스 배출 및 감축 관리현황 등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로 토론과 정책 제안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책토크룸은 서울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을 남기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토크룸은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책임자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적 실행방안에 대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단순히 토론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미래 에코도시 서울 실현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대한민국 100년 책임질 호남 청년 핵심리더 양성한다



전라남도는 11일 고흥 마리안느와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지는 청년 핵심 리더 1천200명 육성을 목표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의 출범을 축하하며, 호남의 청년들이 불의에 맞선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세계로 도약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전남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제1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개강,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첫 강사로 나서 '도전의 심리학' 특강을 했다. 1기 아카데미는 지난 40여 년간 한센인을 돌보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테마로 오는 4월 22일까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1회 4시간) 교육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2기는 '평화와 자유'를 테마로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3기는 '충과 의'를 테마로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순천과 무안에 거점별로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의 꿈 실현을 돕고, 특히 전남지역 청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경북도,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과 4조

2,500억원 투자 협약

경북도는 14일 도청 미래창고에서 경주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 2,500억원 규모(17억원/MW)의 자본을 투자해 2.5GW(최근 준공한 울진 신한울 원전 1기(1.4GW) 용량 1.8배 수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북 내 산업단지에서 설치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사업이다.

본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 면적(8.215ha)중 30%에 해당하는 지붕 등 유휴공간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 100% 참여로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 기업주에게는 경북형 저탄소정책 실현 및 기후변화(RE-100)규제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재생에



너지사업 추진, 사업제안·설명회 등 계획수립, 지역시공사 선정 및 각종 지원사업 시행에 협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리용자, 국비지원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에너지진단 등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단계별 산단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경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세계 최고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65조 자산규모와 국내 전력의 28.24%(2021년말 기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로 원자력발전소 25기, 수력발전소 37기, 양수발전소 16기를 운영해 우리나라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에너지공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주력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경북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원 및 에너지 수도 경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향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수반되는 시설공사는 지역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에너지가 필요한 수출기업을 경북에 유치하는 에너지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고, 협약기관과 머리를 맞대 지역에 더욱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상생협력 모델 만들기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향기와 색깔의 향연, 산소카페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군은 이름 그대로 피톤치드 향이 뽀뽀 솟아나는 푸른솔의 고장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봄은 새파란 청보리의 물결이 바람소리를 내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가을은 백일홍의 아름다운 자태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을 마주하는 곳!
힐링 명소, '산소카페 청송군'

※ 피톤치드: 식물에서 분비되는 향균, 살균성을 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총칭.
※ 부농: 사리를 연성시키는 분홍색에서 유래된 SNS 용어.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의미한다.

안동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명소 '각광' 지역경제 활성화 '톡톡'

해상촬영장 5년간 총 17회 촬영 2,200여명 방문, 사용료 1억5천만 원



안동이 영화·드라마 촬영 로케이션 명소로 조명받고 있다. 특히, 안동호 석동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해상촬영세트장에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국민적 인기를 동원한 tvN '조선 정신포의사 유세풍', tvN '환혼', tvN '슈룹' 등 3편의 드라마가 5회 촬영됐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넷플릭스 '킹덤', MBN '보쌈 운명을 훔치다', tvN '어서와 조이', KBS1 '태종 이방원', KBS2 '연모', SBS '해치' 등 시청률 상위를 차지한 많은 작품이 이곳 해상촬영장에서 지속 촬영됐다. 이 기간 약 2,200여 명이 넘는 출연자, 스태프 인력들이 방문하고, 시는 1억5천만 원의 사용료도 거둬 들 수 있었다.

드넓은 안동호를 배경으로 설치된 해상촬영세트장은 5,752㎡의 면적에 목선 3척, 부교 1척(160m), 초가 6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안동 곳곳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들이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빛을 발했다. 고산정에서는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한 tvN '미스터전

사인'이 촬영됐고, 옥연정사에서 '광해, 왕이 된 남자',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부용대에서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황진이', '추노', 봉정사에서 '나랏말싸미', 병산서원에서 '취화선' 등이 촬영된 바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월드 랭킹 1위를 차지한 '지금 우리 학교는'이 성희외교에서 촬영되며 역사극뿐만 아니라 현대 작품으로까지 지평을 넓혔다.

안동시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안동 배경 영화 촬영 제작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안동을 로케이션으로 한 영화 '외계+인 1부'와 '아이월송'이 개봉하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찍이 퇴계 이황 선생이 예던길을 일러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했듯 안동은 무수한 비경을 간직한 곳"이라며 "안동호의 풍광과 역사문화 유산이 빛어낸 그림 같은 촬영지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업무에 복귀한 이강덕 포항시장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

시민과 직원에게 불편 끼쳐 송구...현장 행보 강화 등 시정에 모든 노력 쏟을 것



이강덕 포항시장은 부친상을 치른 후 13일 업무에 복귀해 간부 공무원들과 첫 회의를 갖고 "지난 일주일간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준 든든한 여러분 덕분에 시정 공백 없이 무사히 보내 드릴 수 있었다"며, "시민과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하고, 그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포항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현장을 찾은 등 현장 중심 행보를 다시 시작한 이강덕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포항이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흔들림 없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포항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환점이 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유치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또한, 배터리

리 앵커기업의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단지에 전기와 공급용수 확보 등 인프라의 구축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은 글로벌 앵커기업과 세계적인 연구소의 유치를 통해 포항이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합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대책 마련 및 우수기에 앞서 소하천의 준설과 하상 정비 등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목숨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해 포항시의 도약을 완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 가져

13일 개발제한구역 주민 의견 청취, 주민들과 제도개선 방향 공유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의 시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제 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 대표로 참석한 신용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은 창원시 중소도시로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며 50년간 재산권 침해와 행위규제에 대해서 도에서 방안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반세기 동안

정부 통제로 지역 개발을 억제하며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다만, 창원권은 도심 중심에 지리적 단점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면해제와 부분조정,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정된 전면해제안

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역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주민들의 이야기

정재현/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북구에서 서부산 전략회의 열고 '주민 복지·편의 시설 확충 추진'

화명고교 방문에 앞서 부산광역시청에서 확대 이전 개소식 참석... 전국 지자체 최초 독립건물 자활센터 운영으로 북구지역 주민 복지시설 확충, 자활 성공스토리 가득 채워나갈 것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3일) 오후 3시 북구 화명고교를 방문한 후,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겨 '제12차 서부산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회의는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화명고교교 교관개선 사업의 완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은 우선 화명고교교 일원 상가 주민들과 북구청, 북구의회와 함께 몇 년째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온 화명고교교 교관개선 사업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업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앞으로의 예산확보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산성터널 접속도로인 화명고교교는 북구 화명동 상업지역을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2015년 완공됐다. 착공 당시 인근 상인과 주민은 지역 단절과 조망권 침해를 불러오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대하여 시와 북구



청은 여러 차례 주민 협의를 거쳐 교관개선 사업을 약속했다. 시는 특별교부금 등 예산을 지원하고 북구청이 5개 구간 교관개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현재 5개 교각 중 2개 교각만 완료됐고, 2019년 이후 예산 미

확보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박 시장은 이날 현장 회의에서 "화명고교교 교관개선 사업의 재개를 위해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교관조명뿐 아니라 고교교 하부 인도도 친

환경적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박형준 시장은 화명고교교 방문에 앞서 부산형 원스톱(ONE-STOP) 자활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부산광역시청 자활센터' 확대 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독립건물을 확보해 운영에 들어가는 부산광역시청 자활센터는 기존에 연산동에서 북구로 이전하며 지상 4층 독립건물 전체를 오롯이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운영함에 따라 '자활 성공 스토리'로 가득 찬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부산 전략회의'는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서부산의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된 현장회의로, 이번 회의에서는 북구지역의 주민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

송준진/기자

통영한산대첩축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

한국관광공사 32개 해외 지사와 글로벌 홍보마케팅 기회 마련

통영한산대첩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예술·체육·음식·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홍보를 위한 이벤트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면 한국관광공사는 32개 해외 지사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한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1592년 임진왜란 한산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해 1962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 62회째를 맞는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오는 8월 4일부터 8월 13일 까지 10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으로 해상에서 선박 100여 척이 참여하는 '한산대첩제현' 등 대표 프로그램과 외국인 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영 거북선 노젓기대회', '버블코스프레 거리퍼레이드' 등 글로벌 축제프로그램으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제61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기존 축제의 형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축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5일에서 9일로 축제기간의 확대, 야간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시간대 운영, 도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축제 개최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제 취소의 안타까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류태수 대표의사는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2년간의 공백을 이겨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사랑받는 글로벌 축제가 되길 기원하며, 향후 우리 통영한산대첩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박동식 시장, 시내버스 탑승과 환승 체험

박동식 사천시장의 발로 뛰는 행정은 계속된다.

박 시장은 13일 오전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체험에 이어 시내버스 탑승객들의 불편함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 '시내버스 탑승과 환승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사천터미널에서 230-1번 시내버스를 타고 스위첸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이동하면서 불편사항을 직접 몸으로 느꼈다.

또한, 사남면 월성삼거리 승강장에서 환승 체험한 박 시장은 환승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시내버스 탑승객과의 대화를 통해 운행 시간, 배차간격, 노선추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시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3월 1일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권역별, 행정구역별로 시내버스에 번호를 부여해, 시

내버스 번호만으로도 어느 지역으로 운행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시내버스는 시청을 경유하도록 했으며,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을 함께 시행해 사천시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 직접 느껴보기 위해 시내버스 탑승과 환승 체험을 하게 된 것"이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전북도 2023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 정기총회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한마음 '응원'



(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김동수 범도민지원위이사장을 비롯한 범도민지원위 이사과 운영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범도민지원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백승기 사(사)신지식장학회 상임 이사의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꿈 길에서' 제안 설명으로 내실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범도민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로써 대의원 88명을 납부 대상으로 최소액 10만 원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상한액인 최대 50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운영회 회비 납부에 대한 안전을 가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동수 이사장은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에서 펼쳐질 세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무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올 8월 잼버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닫혔던 국제 교류와 협력의 문이 전북에서 활짝 열릴 것"이라며, "무엇 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2월 도내 각계각층의 리더 705명으로 출발한 범도민지원위는 도내 14개 시, 군 2,023명의 도민이 참여하고 있는 잼버리 서포터즈와 연계한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잼버리 성공 개최의 열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남출/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10일 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의 열고 발전방안 논의



정읍시와 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올해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기본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자연경관의 다양성 강화와 편의시설 보완, 축제 음식의 메뉴와 위생 강화, 진입로 등 주요 거점 공간의 연출강화, 잔디광장 등 5개 테마정원의 폭넓은 활용 등을 통해 금년도 축제에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축제위원회 참석위원들은 MZ세대 등 젊은 층이 참여하는 축제를 위해서는 트렌디한 먹거리 개발과 상징성 강한 포토존의 설치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체험행사와 휴식 공간 제공으로 잔디광장에 대한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원 중앙의 목조건물 공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정원과 축제의 공간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프로그램 도입, 교통환경 편리성 제고, 방문객 안전을 위해 정읍시와 축제위원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구절초 꽃축제는 지난해 26만 명의 관광객과 74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명품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제16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구절초 지방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하은/기자

한·중·일 3국 청년들,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의 매력에 '흠뻑'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 방문하고, 전주의 맛과 멋이 담긴 전통문화도 체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청년들이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전주의 맛과 멋에 매료됐다.

전주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청년 30여 명의 한중일 3국 청년대사들이 지난 1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한중일 3국 청년대사들의 이번 전주 방문은 시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ri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의 청년대표 프로그램(YAP)을 유치하면서 성사됐다.

청년대사들은 방문 첫째 날인 지난 11일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고, 둘째

날에는 자유롭게 전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또한 이들은 비빔밥 만들기 and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의 맛과 멋을 경험하기도 했다.

청년대사들은 13일 전주시청을 찾아 전주시의 국제교류 현황과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2박 3일간의 전주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은 동아시아 3국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평화, 공동번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서울에 설립됐다.

사무국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각종 정부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한중일 3국 협력사업 포럼을 개최하는 등 3국 협력사업 발굴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반환어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한중일 3국의 미래 발전과 교류에 교량 역할을 할 청년들 대상 전주를 세계에 알리고, 3국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심어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중국, 일본 지자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3국의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부안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군단위 지자체 82곳 중 최우수 8곳...전북 2년 연속 부안군 유일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 행정기관 46곳과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와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5개 분야 19개 지표로, 서면평가 및 현실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고 '가' 등급부터 최소 '마' 등급까지 부여되며, 종합 결과 전국 상위 10% 이내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부안군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수립의 적합성,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정보 제공 및 민원 법령 운영, 민원 처리 상황 확

인, 점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충실도,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등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번역기 비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다국어 생활편의 안내 책자 제작, 비치 등 외국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처리상황 점검 및 주 3회 민원 처리 사전예고 통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기관장의 민원 행정 관련 활동' 지표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한 대내 활동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이용해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노인 인구가 많은 부안군 특성을 감안해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쉽게 민원 서식을

개선한 부분에서는 가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82곳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8곳으로 전북 도내에서는 2년 연속 부안군이 유일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안군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군민과 친밀하게 소통하여 편안함을 드리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남원시, 활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방문형 공동체 지원교육'찾아가는 공동체학교' 희망단체 신청접수

남원시는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는 2020년에 시작하여 매년 현장방문형 운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단체는 총 31개 단체, 275명으로 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왔다.

'찾아가는 공동체학교'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이후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연계됐다.

올해 진행되는 '2023년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단체를 직접 찾아가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이동식 교육을 진행한다.

2월부터 10월까지 공동체 구성원의 수요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이해, 공동체 활동 체험,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신규공동체나 재도약 공동체에게는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 구성된 모임이나 3~5인 이상의 공동체라면 누구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고, 접수 상세 내용은 남원시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익산시, 식품미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활

정현을 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국가산단 지정 건의 서명서 국토부에 전달

익산시가 대한민국 식품산업 미래가 달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에 사활을 건 총력을 펼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과 김수홍 국회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국토교통부(이원재 1차관)에 전달했다.

이번 2단계 산단 지정 건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100여명이 넘으며, 지역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미래산업에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며 익산에 힘을 보탰다.

익산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팽창함에 따라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대도약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정부로부터 신규 국가산단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후보지 제안서를 지난 12월 제출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평가 진행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 국내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으로 232만㎡(70만평) 규모로 1단계 조성 이후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78.8%의 분양률(국토부 산업단지정보시스템)을 기록하며 조속한 2단계 산단 확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입주를 희망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확장 추



진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포함한 12개 기업지원시설들의 윈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연매출 성장률은 7.1%로 국내 식품산업의 5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로 현재 1단계 산단 인근에 미래형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 모델을 제안했다. 푸드테크 기반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순 식품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넘어 생산·지원·문화가 결합한 형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합동설명회와 현장점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상임위원 설득 등 후보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선수/기자

김수홍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동공약을 약속했고,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나라 100년 먹거리 산업을 견인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단계 지정에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다"며 2단계 지정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들을 최종 평가를 통해 2월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선수/기자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주 노무관리 역량강화 교육 개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서 퇴사까지"절차와 근로기준법 교육

김제시가 지난 10일 오후 2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주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 또는 고용한 농·축산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농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원활한 고용관계 형성 및 갈등 예방을 돕고자 마련됐다.

노무법인 수 이택수 대표노무사

는 "외국인 채용에서 퇴사까지"절차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강의 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및 질의응답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주들의 궁금한 점 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교육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이 진행되어 농가주들의 관

심과 호응이 높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리 등 관계 법령을 잘 이해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애로 및 불편 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교육을 통해 노·사간 원활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농가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구례군,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모집

농산물가공 분야 강소농 역량 강화를 위한 20회 교육 추진

전남 구례군은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

선정되고 교육 20회 중 70% 이상...

올해 강소농 교육은 특별히 표준...

교육 일정과 모집에 대한 자세한...

교육은 오는 3월부터 농번기인 6월...

김성현기자

장흥군,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TF' 활동 본격화

장흥군이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

정책개발 TF는 토요시장 활성화...

전국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10일에는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특히, 장흥읍 서부권의 경우 정남진...

TF 단장인 조석훈 부군수는 "공유...

삼형제가 장원급제한 명장 장원봉...

장흥군은 활발한 TF 활동을 위해...

조석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팀...

백재원기자

나주시, 2024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도 국고 확보...

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등 에너지...

나주시는 윤병태 시장 주재로 부시장...

시는 중앙부처 예산 신청 기간인 4...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주요...

윤병태 시장은 국고건의사업과 더불어...

내년도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국립...

이러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핵심...

이외 "에너지전전문과대학 건립'(450...

윤 시장은 "관내 국·도립기관, 혁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김영안기자



여기어때? 전남 축제장 관광객에게 '손짓'

전남도, 대표 축제 10개 선정...예산·컨설팅·홍보 등 다각적 지원



을 펼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처럼 선정 10대 축제들은 주민...

2023년 전남도 대표축제는 지난 9...

앞으로 2월 강진청자축제와 3월...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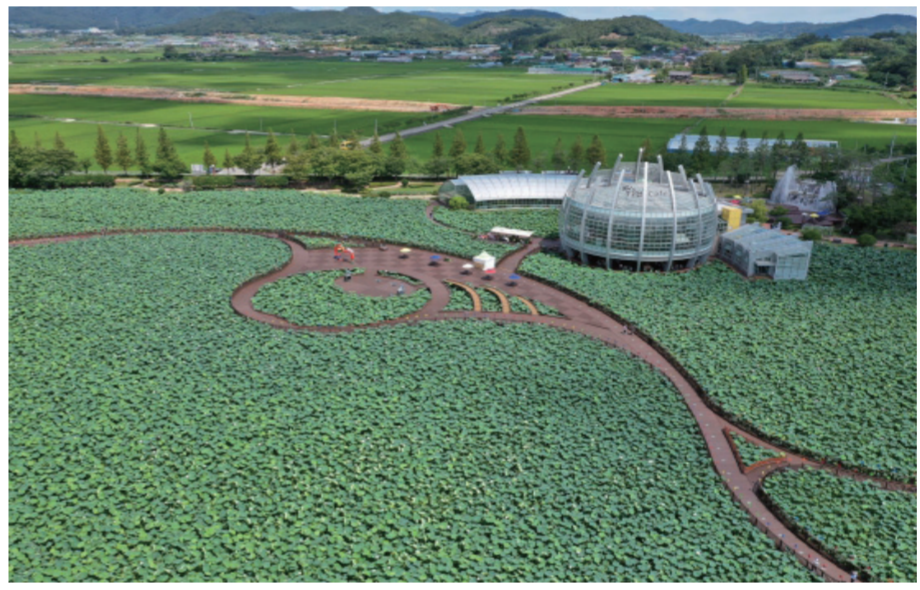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정명명기자

'무안연꽃축제', 올해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도비 2천만원 확보, 실경주제공연, 미디어아트 호평

전남 무안군은 '무안연꽃축제'가...



연과 야간 미디어 콘텐츠 운영을 확...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지난해 무안연꽃축제는 '연꽃의 향...

정광남기자

광주광역시, 빅데이터로 사고요인 분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추진

연간 5건 이상 인명피해 발생한...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과 협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무안연꽃...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매일시장 친환경 녹색시장으로 활성화 모색"

실과소·읍면 열린소통회의, 친환경 소포장재 등 지원 지시

명현관 해남군수는 13일 정례회의...



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현대화된 시장 건물을 신축...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시장에서...

명현관 군수는 "소중한 경매 수익금...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 복지...

올해 개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또, 그동안 사업비 부족과 우선순위에...

이중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남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의 차로...

나머지 10곳도 사고 발생 요인을...

한편, 2021년 개선 사업을 시행한...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

김병수기자

2023년 속초시 승격 60주년,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

정선군, 감동과 매력이 넘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화 한다.

민선8기 원년,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여정 준비 박차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은 속초시가 1963년 1월 1일 속초읍에서 시(市)로 승격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63년 당시 속초시 인구는 5만 5,619명. 한해 예산은 24백만원에 불과했지만, 60년이 지난 2023년 1월 1일 현재 속초시 인구는 8만 2,806명(남 4만 1,037명, 여 4만 1,769명), 예산은 약 4,956억으로 60년전에 비해 인구는 2만 7,187명이 증가했고, 예산은 2만배 규모로 살림살이가 늘었다.

이러한 발전속에서 역경을 극복한 속초시의 역사와 시정 발전취를 재조명하고 승격과 성장 60년의 주인공인 속초시민이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바람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10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소통, 화합, 성장"의 장을 2023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속초시는 2023년 市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60주년의 의미와 새로운 도약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기 위한 기념 엠블럼을 제작·공개했다.

60주년 기념 엠블럼은 뛰어난 자연(해, 산, 호수, 바다)을 품은 속초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하나된 시민의 힘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리본의 형태로 표현했다.

60년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띠로 표현하는 한편 바깥쪽은 검정의 띠로, 안쪽은 4가지 상징색(해, 산, 호수, 바다)을 적용하여 '속초시는 선물'이라는 리본의 의미도 담고 있으며, 2027년에 완공될 고속철도의 이미지도 담고 있다.

이번 엠블럼은 영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2023년 한 해 동안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며 60주년 붐 조성을 위해 관내 사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엠블럼을 배부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23년은 민선8기 원년인 해로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시정 슬로건을 실현하고 지



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60개의 기념사업(행사)을 선정·추진함으로써 시 승격 60주년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속초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앞서 '23. 1. 1.에는 기념사업(행사) 중 하나인 "속초시민 새해맞이 행사"를 처음으로 속초해수욕장이 아닌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1. 18.에도 "시민이 하나되는 미래 행복 동행(시정보고회)"행사를 약 600여명의 속초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크리아트 퍼포먼스, 60주년 기념영상, 속초 미래 100년의 약속(PPT) 등을 통해 시민께서 이루어 낸 60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시에서는 "미래도시, 행복도시, 안심클린도시, 상생건강도시"의 4가지 핵심가치 아래, "시 상징물(CI), 캐릭터, 서체 제작", "시 승격 60주년 기념식(설악문화제 개막식 연계) 및 특별이벤트(드론라이트쇼) 개최", "탄소중립 관광도시로의 도약", "대포농공단지 약취 개선", "시정 60년사 및 속초시지 발간", "ICT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 준공", "속초시에향적학기금 50억 달성", "60년만의 시청사

이전 착수", "장애인증합복지센터 착공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어르신(70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시민의 삶의 변화와 시정의 혁신을 주도할 다양한 분야의 60주년 기념사업(행사)들을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수시 자문·협업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 내실화 등 착실히 준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 1. 27. 개최된 '민선 8기 간부공무원 비전 공감 역량강화교육'과 오는 2. 9.부터 10.까지 개최된 '2023년 현안사업 점검회의'를 통해 민선8기 공약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승격 60주년 기념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시 승격 60주년 기념의 해'가 '미래 100년을 연 특별한 해'로 기억되도록 전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선 8기 속초시정은 시민께서 이루어 낸 6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두가 꿈꾸는 '변화된 속초, 재도약하는 속초' 구현을 위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향후 100년 성장의 신동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정선군이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인 감동과 신로움이 가득한 해발 1,381m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관광 랜드마크 자리매김을 위한 브랜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동계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가치, 가리왕산의 특색과 케이블카의 시각화를 통한 국민고향 정선 관광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BI)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BI)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가치를 시각화함으로써 군민들이 지역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유하고 관광객들에게 국민고향 정선을 알리는 관광거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 개발 배경 및 방향성, 브랜드 디자인 및 상품화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발의 필요성·지역성·독창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도출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정·보완해 상반기 중 용



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브랜드 활용을 통한 국민고향과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로는 바다가 되고 하늘이 되고 우주가 되는 마법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해발 1,381m 가리왕산을 단 20분 만에 오르는 국민고향 정선의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정선군민들의 새로운 희망을 한가득 싣고 지난 1월 3일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9,200여 명의 관광객들이 가리왕산을 찾았다.

또한 국민고향 정선은 한국관광공

조혜영/기자

천안시, 안전한 '2023 아우내 봉화제'...유관기관 합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심의

천안시는 13일 오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실무위원과 행사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는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3·1운동 104주년 기념 아우내 봉화제를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구축으로 철저한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교통대책, 화재 및 인파사고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최정근/기자

행사 당일 먹거리장터 운영 및 공연, 핫볼행진, 불꽃놀이 등이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 전날에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인파관리 및 화재발생 시 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이 원활히 적용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정해진 천안시 안전총괄과장은 "올해 아우내봉화제는 마스크 해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 도시미관의 미래 위한 전략적 개발 당부

자율적이고 자동적인 총괄 관리로 도시 미관의 균형 찾아야

조길형 충주시장은 13일 현안업무회의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중앙탑면, 안림지구, 시민의 숲, 종명대길" 등을 예로 들며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을 간직했거나 향후 개발이 이루어질 장소들 간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라며 "도시 미관을 결정지를 전략적 개발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뒤에

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할 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기존의 환경을 지키는 항상 도시 전체의 모습을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건물이나 공간의 색상·모양에 이르기까지 작은 부분일수록 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길형 시장은 "추진하는 여러 사업 간의 총괄적인 관리와 공유가 이루어져야 도시 미관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라며 "문기 전에 사업 현황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향후 계획까지 예상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자동적인 관리를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말은 업무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데이터화하고 늘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호/기자

2023 동해시 외국인 방한 원년의 해! 관광마케팅 총력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2일 베트남 유력 미디어 및 여행사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12일부터 3박 4일간 동해, 양양, 강릉, 평창 일대에서 진행되며, 베트남 팸투어단은 첫날인 12일 도재비골 스키야벨리과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하여 자이언트 슬라이드, 스키야클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체험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지정 시설인 동해보양원천컨벤션호텔에서 목는 등 동해시에서 여행 1일차 전 일정을 보냈다.

올해 동해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도재비골 스키야벨리, 무릉계곡과 K-컬처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2023 목호 도재비골스타 등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관광지와 관광이벤트를 동시에 갖춘 동해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국내외에 알리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팸투어 외에도 동해시와 동해문화관광재단은 동남아 및 일본 관



광객 유치를 위하여 플라야강원과의 MOU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6일부터 인천-시즈오카 간 정기노선 취항에 대비하여 2월 26일 시즈오카지역 여행사 사장단 15명을 동해시로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한다.

또, 강원도 지정여행사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작년 4분기에 취항한 도코 나리다-양양 항공노선을 활용한 동해 지역 방한 여행상품을 올해 2월부터

판매 중에 있다.

심규원 동해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여행의 트렌드가 국가별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지방의 아름다운 장소형 관광지를 보유한 중소도시를 찾아 가는 개별여행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변화의 중심에 동해시 관광지가 있도록 국내외 관광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영동군, 글로벌 인재 양성 박차. "지역 학생들 세계무대 경험"

충북 영동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며 글로벌인재 양성에 나선다.

군은 (재)영동군민정학회 주관으로 13일부터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중학생 대상 청소년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미래영동을 이끌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군은 지난 2018년 지역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해외연수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사업의 효과가 높아,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공약에도 주요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반영했으며, 해외연수 지역 다변화,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을 하며 매년 지역 초등학생 20여명, 중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해외연수단은 지난해 실시한 중학생 영어캠프와 도전 골든벨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관내 중학생 31명과 인솔자 4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이달 13일 저녁 한국을 떠나 24일까지 호주 퍼스 및 시드니에서 연수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호크 공립 중등·고등학교, 레이크랜드 중등·고등 시니어 하이스쿨 등에서 직접 수업에 참여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호주 시드니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현지 교육문화 체험을 한다.



또한, 프리맨틀 마켓, 항공역사박물관, 오페라하우스, 달링하버, 블루마운틴 등지에서 문화관광체험도 계획돼 있다.

현지 생활 문화를 몸소 경험하면서 실생활을 통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해외연수단은 영동군을 대표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영동군에 대해 홍보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하며 영동과 한국을 알릴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의 일꾼이 될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지역의 새 성장 토대를 다진다는 사실에 공감과 응원 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영철 영동군수 13일 영동군청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해외연수단을 찾아가 관계자들에게 지역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김원호/기자

서귀포시, 스타트업의 파라다이스로 거듭난다.



지역 내 창업 지원시설 확충과 자문 그룹 운영을 통해 서귀포시를 스타트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스타트업베이 글로벌 센터'(혁신도시 내 북합혁신센터 3층) 보육기업 20개 社(상주 10, 비상주 10)를 선정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24일에는 창업 성공 경험자 등 개혁성이 높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자문단'을 발족하고, 자문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창업 초창기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역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과 우수기업 유지 활동에도 나서게 된다.

다.

수시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해 전통·지역산업의 스마트화와 청년기업 육성 방안,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필요한 제도 정비 필요 내용 등을 도출하여 기업과 서귀포시에 권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서귀포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도와 중앙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내 최초 창업과 주거공간 결합 시설인 스타트업타운(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을 2025년 1월에 선보이는 등,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인프라 조성 노력을 계속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지원/기자

경북도, 올해 해양수산분야 437개 사업 1,576억원 투자

지방시대 주도할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예산 대폭 반영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올해 해양·수산·관광분야 437개 사업에 총 1,576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수산업 달성과 어촌 활력 증진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식시설 및 수산가공시설의 현대화, 어촌어항 지역 현대화, 조업환경 개선 등 100개 사업에 7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개발을 위한 어촌뉴딜 사업 211억원, 내수면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관광어비즈니스센터 건립 87억원, 양식산업의 6차산업화 및 연어 대량양식 기술 확립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98억을 투입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의 보물인 독도 접근성 강화와

주권 확보를 위해 독도관리선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 70억원을 투자하고, 연안침식의 체계적 관리와 신규 탄소중립원인 블루카본 연구 등 청정 해양환경 조성과 물류 거점항 육성을 위한 항만사업 추진 등 30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 걸맞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해 해양치유센터 조성 51억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27억원을 투입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대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천천항 거마보행교 건립 9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건립 36억원 등 42개 사업 2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및 특



화양식 품종 개발 등 선진기술 보급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방사능을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35개 사업 106억원을 투입한다.

풍요로운 경북 어장 조성을 위해 고부가 품종 개발 및 자원조성을 추진하고 K-연어 양식기술 확보를 위한 스마트아쿠아팜 연구기반 시설 추진

등 30개 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민선8기를 맞이해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는데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김해시, '2030 새로운 김해, 성장하는 경제'5대 혁신 전략 추진

G-G(GROWING GIMHAE) 김해 산업 청사진 발표

김해시는 13일 민선 8기 김해시의 경제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2030 새로운 김해, 성장하는 경제' 5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해시는 제조업 영세화와 부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난 5년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그러나 도내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 2위, 인구 2위의 대도시로서 지방소멸 시대에서도 동남권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동남권 지리적 중심지로 육해공 트라이포드 구축의 최적지이자 배후 물류 도시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높게 가졌다"고 설명했다.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1,600억원을 2030년까지 3,000억원으로 늘리면서 노동자 복지환경 인프라를 확충해 전반적인 기업 체질 개선을 실현한다.

◇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산업 메카 도약시는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5대 전략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하여 미래 신성장산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시가 2005년부터 투자해 온 의생명산업은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비대면 의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시민건강형 의생명사업 발굴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도시 김해를 목표로 달린다.

디지털 물류산업은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과 보조를 맞춰 스마트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센서산업과 지능형로봇산업은 진드련 일원에 센싱유닛실증센터, 로봇리퍼블센터 등 거점시설을 조성해 해당 전략산업 전국 거점화를 추진한다.

미래자동차산업은 벼추출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사업을 시작으로 전동화자동차 부품의 지역 대중소기업상생형 공급망 구축사업과 디지털 트윈 및 XR(확장현실) 기반 미래차부품 제조와 시험기반을 조성한다.

5대 전략산업 외에 시의 먹거리가 될 미래기반산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액화수소 시스템·기차재연구개발 인프라와 민군MRO육성센터 유치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또 지역 ICT기업이 집적할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ICT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추진한다.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은 인프라 구축사업과 웹툰거리, 웹툰마을 조성을 추진해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식품산업도 초추진 일대에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신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 전략인재 양성 플랫폼과 전략산업 전문대학원 조성을 추진한다.

◇ 청년친화·청년창업 허브 조성시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해 청년 순유출 제로화를 추진한다.

경남청년창업허브를 유치해 창업공간을 확충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제품실증과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을 지원할 청년창업 테스트베드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콘텐츠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모태펀드 조성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소통 3개 분야의 맞춤형 148개 지원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 투자매력특별시 김해 건설시는 새롭게 구성한 투자유치단과 투자유치자문단을 중심으로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투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유치자문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위한 선도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의생명 산업 투자 유치 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투자금액의 10%이내, 최대 6억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전략산업 유치 시에도 전

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타 지자체 지원제도와 사례를 검토한다.

한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지능기계 국가산업단지, 각종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투자협력을 한 유치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한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일용거기, 협력기업 유치와 집적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힘을 계획한다.

◇ 민생경제 특화도시 조성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민생경제 지원시책도 추진한다.

김해만의 특색있는 7가지 특화거리를 지역명사로 조성하고 대학캠퍼스 특화촌을 만들어서 지역상권 재도약을 꾀한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지역소상공인이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 전주기 디지털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한가격 업소를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다양화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

시는 5대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민선8기 경제분야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정부계획 반영, 국비확보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수도권 집중 시대에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면서 "5대 핵심 프로젝트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반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구미시가 이끌어가는 메타버스 산업

구미시는 13일 구미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미시·경상북도 관계자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실증'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사업환경 분석, 기본구상, 사업수행 계획, 사업추진 일정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용역은 향후 본격화될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현장에 미래 신기술의 필수 통신 인프라인 5G 특화망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산업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기업육성 등 메타버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구미시는 5G테스트 베드, XR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등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위한 집적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G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메타버스 기반 최첨단 제조·공정 서비스를 확산하여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미래 경제와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 신산업인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에 구미산업단지가 있도록 하겠다"며 META-CITY(메타버스 산업도시) 구미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타용/기자

충북도,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5개 업체 선정, 기업경쟁력 제고 및 충북경제 활성화 도모

충청북도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제조업체 중 품질분임조 활동을 추진하고 싶으나 전문지식 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컨설팅과 밀착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도에서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업에서는 216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품질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제조업체는 제외된다.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 지원, 국가품질상 신청 시 우대, 소속사 임직원 품질경영 유공자에 우선 추천, 발간 및 보급, 한국표준협회

월간지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연구단지 40)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과정을 거쳐 5개 업체가 최종 선정된다.

도는 지난 2021년, 2022년 연속 품질분임조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10개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10개 기업 모두를 입상시키게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선희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품질분임조가 기업과 충북경제 혁신의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품질분임조 육성에 있어 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가절감 및 품질생산성 향상의 역할을 감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글로벌 혁신 이끌어갈 기업환경 조성에 총력”

CES 2023 혁신상 수상 및 UAE 순방 경제사절단 참가한 지역기업 초청 간담회

포항시가 13일 최근 세계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그래핀스퀘어(대표 홍병희), ㈜원소프트다이(대표 이대호), 망고슬래브(대표 정용수), ㈜인핸드플러스(대표 이휘원) 등 4개 기업과 한-UAE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메인정보시스템(대표 박익현) 등을 초청해 최근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방안 및 정책 제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지역기업들은 차례로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한 규제개선, 자금지원 및 투자 확대 방안 등을 가감 없이 제안했으며, 지역 내 성장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바이어 확보,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홍병희 ㈜그래핀스퀘어 대표는

성공을 격려하고, 향후 발전방안 및 정책 제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지역기업들은 차례로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한 규제개선, 자금지원 및 투자 확대 방안 등을 가감 없이 제안했으며, 지역 내 성장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바이어 확보,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홍병희 ㈜그래핀스퀘어 대표는

“나노의약품 특성에 맞는 신약 물질 가이드라인과 그에 걸맞은 신속한 규제 시행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앞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노 신약 개발 규제특구 신설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대호 ㈜원소프트다이 대표도 “바이오·헬스케어 플랫폼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제품 상용화, 기술 이전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자생적인 창업생태

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금 세계시장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선점, 주도해나가고 있다”며, “지역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투자 확대, 규제 특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거점인 '영일만 밸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공식 인정상품 15종 추가 선정

경상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법향다원, 선돌마을, 해밀농원, 해뜰목장 제품 15종을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은 △법향다원(대표 이쌍용)의 시배지(죽로)차, 시배지(죽로)발효차, 우전, 제작, 발효차 등 5종 △선돌마을(대표 이종민)의 하늘마음 순(우전), 하동녹차(제작), 하동홍차, 순수유자차, 아침엔 호박차 등 5종 △해밀농원(대표 김원균)의 봄향향 황매실, 봄향향 매실잼, 봄향향 블루베리잼 등 3종 △해뜰목장(대표 안상섭)의 해뜰목장 스위트 요거트, 해뜰목장 플레인 요거트 등 2종이다.

법향다원은 12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 시배지에서 자란 차잎으로 무척 가마솥에서 아홉 번을 덖어 만들어 차향이 진하고 부드럽다. 발효차는 한옥의 향토방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2~3년간 발효하여 차향이 깊고 은은하여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 이쌍용 대표는 가내 3대째 다매를 이어오고 있으며 쌍계사의 다매도 이어오고 있다. 시배지차는 법향다원에서만 관리, 제다(製茶), 판매하고 있다.

선돌마을은 이종민 대표가 전통 방식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기계 덖음 방식으로 제다(製茶)한다. 현대인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연구하여 녹차, 발효차뿐만 아니라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호박차, 특히 받은 유자차 등 다양한 대용차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다양한 차를 시중 카페에 납품하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밀농원은 지리산 구재봉 아래 해발 400m에 위치한 청정 농원이고, HACCP시설을 갖추어 제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한다. 봄향향 황매실은 3년 이상 발효 숙성한 황매실 원액으로, 신맛이 적고 맛이 부드럽다. 매실잼과 블루베리잼은 저온진공 농축방법으로 제조하여 영양소 파괴

를 최소화하고 원료 고유의 맛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해뜰목장은 지리산 자락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HACCP 시설에서 가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유제품을 만든다. 해뜰목장 요거트는 유럽 수제 정통 발효법인 저온 장시간 발효 방식에 안상섭 대표의 31년간의 노하우를 담아내 만들었으며, 화학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건강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엑스포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는 지역업체들 덕분에 행사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하동세계차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직위에서는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265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인정상품 사업자에게 계약일로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엑스포 로고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했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 행사로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재현/기자



용인문화재단, (친절한) 더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 개최

(재)용인문화재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용인시문화회관 처인홀에서 ‘(친절한) 더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친절한) 더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는 미술과 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과 해설을 결합한 라이브 콘서트로 매월 선보이는 상설공연이다.

상반기에는 ‘클래식으로 만나는 미술’이라는 주제로 ▲빈센트 반 고흐, 열정의 랩소디 ▲야호네스 페르메이르, 델프트에서 온 편지 ▲오귀스트 르누아르, 색채의 교향곡 ▲구스타프 클림트, 관능의 멜로디 등 다양한 작가와 미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공연장 로비에 작은 전시도 마련하여 음악이 보이고 미술이 들

리는 공감각적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는 ‘클래식으로 만나는 문학’을 주제로 ▲놀라운 추론의 영감, 설죽 홈스의 바이올린 ▲빅토르 위고 vs 빅토르 위고 ▲백성 시인과 라 트라비아타 ▲시, 음악으로 말하다 등 해박한 식견과 재치 있는 김이곤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3월 공연 ‘빈센트 반 고흐, 열정의 랩소디’는 순수한 영혼의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반 고흐의 아름다운 작품들과 음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조혜영/기자



수원문화재단, 202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사업 공모

수원과 시민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담아주세요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202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미디어(영상, 라디오, 신문 등)를 매개로 이웃과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마을미디어 활동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지원유형을 단순화하여 참여예비를 확대했다.

모집대상은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이며, 활동기간과 추진내용에 따라 지원 유형(성장형, 매체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성장형은 지역 기반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동과 단기 마을미디어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3년 미만의 신규 활동 팀이 대상이다. 팀별 300~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매체형은 정기적 매체 운영과 시민 참여형 마을미디어 행사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3년 이상 활동한 팀이 대상이다. 팀별 400~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대여,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크 등도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3,500만 원 규모이다.

접수는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활동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지원 편의를 돕기 위해 신청서 작성법 안내, 예산편성 등 1:1 맞춤형 상담도 운영한다.

한편, 오는 16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개별상담 시간도 준비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신청 또는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수원미디어센터 관계자는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수원이 전국



조혜영/기자

부산 금정문화재단, 2023상설공연몇부름 "금정버스킹" 공연 참가자 모집

지역예술인(단체) 및 생활문화동호인 대상으로 35팀 내외로 선발 예정

금정문화재단은 금정구민의 삶의 터전인 온천천변을 중심으로 버스킹 문화 공연 '2023 상설공연 몇부름 금정버스킹' 참가자를 오는 2월 17일(금) 자정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 '불금버스킹'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금정버스킹'은 작년 약 40회의 공연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현재 금정구의 대표 버스킹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정버스킹'은 온천천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버스킹 문화 공연으로써, ▲클래식, ▲합창, ▲국악, ▲마술, ▲무용(댄스) ▲복합장르 등 야외에서 공연이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통해 온천천에 활기를 북돋고,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35팀 선별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야외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의 공연예술 분야로, 금정구와 부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금정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 전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기타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최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금정문화재단 김재윤 이사장은 “금정버스킹”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와 구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온천천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금정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통영한산대첩축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

통영한산대첩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예술·체육·음식·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홍보를 위한 이벤트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한국관광공사는 32개 해외 지사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한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1592년 임진왜란 한산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해 1962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 62회째를 맞는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오는 8월 4일부터 8월 13일 까지 10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으로 해상에서 선박 100여 척이 참여하는 '한산대첩제현' 등 대표 프로그램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영 거북선 노 젓기대회', '버블 코스프레 거리퍼레이드' 등 글로벌 축제프로그램으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61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기존 축제의 형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축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5일에서 9일로 축제기간의 확대, 야간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시간대 운영, 도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축제 개최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제 취소의 안타까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류태수 대표이사는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2년간의 공백을 이겨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사랑받는 글로벌 축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 통영한산대첩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청주문화재단 변광섭 대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기원 챌린지 동참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 충북의 빛나는 유산으로 지구촌이 하나 되는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응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대표이사가 12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기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인 난계 박연의 탄생지이자 국악의 고향, 영동을 알리기 위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은 충북문화재단 김갑수 대표가 지명해 참여하게 됐다.

청주문화재단 변광섭 대표는

SNS에 인증사진과 함께 올린 메시지에서 “예전에 충북의 콘텐츠를 체계화해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와 충주, 영동 세 지역을 연결한 ‘충북 K-뮤직 클러스터’를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 충북의 빛나는 유산이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주와 충주, 영동 세 지역을 연결한 ‘충북 K-뮤직 클러스터’를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변 대표의 챌린지에 이어갈 다음 주자로 청주예총 문길곤 회장, 청주민예총 김옥희 회장, 청주문화원 강전섭 원장 3인을 추천했다.

고정화/기자

에버랜드, 겨울잠 마친 '티익스프레스' 재가동

- ◇ '티익스프레스' 11일 오픈... 최고 시속 104km, 56m 높이에서 77도 낙하
 - 매일 아침 레일 점검, 시운전 테스트 등 안전하고 짜릿한 고객 경험
- ◇ 24일 아마존익스프레스, 3월 1일 썬더폴스 등 급류 어트랙션 순차 가동



봄을 앞두고 낮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겨울철 운영을 중단했던 스틸 어트랙션들을 순차 가동한다.

먼저 에버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티익스프레스'가 겨울 휴식을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티익스프레스'는 바퀴와 레일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나무로 만들어진 우든코스터(Wooden Coaster)로, 약

3분간의 탑승 시간 동안 최고 시속 104km로 질주하며 최고 높이 56m에서 77도 각도로 떨어지는 등 총 12번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티익스프레스 재가동을 앞두고 안전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레일 위에 올라가 볼트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열차 시운전 테스트를 반복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짜릿한 고객 경험을 위한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 티익스프레스에 이어 아마존익스프레스, 썬더폴스 등 급류 어트랙

션들도 오는 2월 24일과 3월 1일에 각각 오픈할 예정이다.

아마존익스프레스는 원형보트를 타고 580미터 길이의 수로를 따라 거친 물살을 즐길 수 있고, 썬더폴스에서는 약 6분간의 래프팅 체험을 하며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빅드롭(Big-drop)과 뒤로 떨어지는 백드롭(Back-drop)까지 총 2번의 급강하 구간을 경험할 수 있다.

어트랙션 오픈 일정 및 운영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에버랜드 홈페이지

지(www.everland.com)를 확인하는 게 좋다.

□ 한편 에버랜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에버랜드 이용권과 달고나, 쥬러스 등 인기 간식이 결합된 달콤 패키지권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까지 윈터 스파 캐비로 변신한 캐리비안 베이 방문한 개인 고객은 당일 오후 3시부터 에버랜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권한서, '징비록'

“중양집권 폐해, 징비록에 잘 나와 있어... 지방분권으로 경북이 지방시대 열자!”



지난 9일 경북도청 미래창고(열린도서관)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간부들로 북적였다. 경북도 간부회의가 열린 것이다.

'미래창고'는 경북도청 안민관 1층 입구에는 "먼저 읽은 책 한 권, 앞선 정책 만든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미래창고 개관 취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원래 당직실이었던 이곳은 이철우 도지사의 제안으로 도민들의 책 심터이자 직원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지식저장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도서관에서 간부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북도는 다르다. 이철우 도지사는 매일 미래창고를 방문한다. 책을 통한 지식축적과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경북도가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간부회의가 미래창고에서 자주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간부들에게 의미 있는 책 한권을 소개했는데 서에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징비록'이다.

도지사가 전하는 징비록의 의미는 이랬다. 부패와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당시 조선의 관료와 중앙집권의 폐해를 예로 들었다. 미리 방비를 하지 못해 전국이 불타버린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조선시대 중앙집권은 매우 심각했다. 대부분의 지방관료는 한양에서 파견되어 가족은 한양에 있고 관료 홀로 지방에 부임했다. 그러니 지방에 애정이 없고 한양으로 돌아갈 기회만 노렸으며 수탈 또한 심각했다. 지방이 무너지니 나라도 무너져 내렸다.

임진왜란은 결정타였다. 나라 전체가 부강하지 못하니 무기력한 패배만 거듭했다. 왜군이 부산에서 수도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

다. 임금과 관료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한양은 불났다.

식량부족으로 곳곳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먹을 것이 없어 결국 가족의 인육마저 먹는 생지옥이 벌어졌다. 특히, 우복룡 현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중앙관료 우복룡이 관군을 인솔해 이동하던 중 영천 하양현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던 하양현 수백 명의 군사들이 말에서 내려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이를 괘씸히 여긴 우복룡이 자기 군사들을 시켜 이들을 모두 쳐 죽였다.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임금에게 우현감이 반란군을 진압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무고한 백성의 목을 치고 반란군 진압이라는 거짓 보고로 우복룡은 현감에서 통정대부(정3품)로 특진을 했다.

간부회의에서 다시 지금의 지방분권 정책이 논의됐다. 낙동강은 경북에 있는데 환경부 관할이다. 금오공대 역시 경북에 있는데 교육부 관할이다. 지방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역을 관리하니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비록을 교훈삼아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에 실질적이고 포괄적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경북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www.bonghwa.go.kr

봉화군 물야저수지 3색 힐링의 옷을 입다!

그저 흔한 저수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다!

일반 저수지에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V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총 3개 구간에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합니다.

물야 오전리, 『娛(즐거움 오) 廬(터 진)』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로 거듭나다!

오전리는 보부상이라는 역사적인 가치와 매력이 충만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V로드에서부터 오전약수관광지까지 봉화 보부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친환경 힐링도시 '봉화군'!

오전약수관광지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중 하나로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사업(V로드)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